

#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과제”

올해 새해설계

강진원 강진군수

## 농업·SOC 확충·관광 활성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집중 빈집 리모델링·푸소 확대...생활 인구 유입·정착 유도

“2025년 강진군의 재도약을 위해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강진을 창조하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강진군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자”며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군민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는 상징성을 갖고 강진의 도약과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강진군은 2025년을 균형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대형 SOC 확충,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중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지역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

하고,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며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강진 반값여행’은 기존 연 2회 지원을 연 4회로 확대하고, 지원비도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강진쌀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기능성 쌀, 논콩, 서리대 재배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한다. 또한 버 재배 농가를 위한 농기계 지원과 중국 수출 확대 등 농가 경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우도에 ‘빛의 숲 관광궤리’를 조성하고, 강진만생태공원을 생태교육과 체험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병영면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로컬브랜딩을 강화하고, 강진항의 예산을 투입하고,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주거와 일자리 정책도 눈에 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주택 신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주거비를 매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남국제직업고등

학교 설립, 푸소(FUSO)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팜 임대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대형 SOC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목포-보성 간 남해선 철도는 7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와 까치내재 터널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은 강진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강진원 군수는 “대형 SOC 확충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강진의 매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군민들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행복한 강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기자

## 신안, 전국 유일 ‘맹그로브 식재 가능’ 최적 갯벌 환경

### 비금도·자은도·임자도 등 다수 지역 도입 예정

신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맹그로브가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갯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맹그로브 도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생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금도, 자은도, 임자도를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각각 100만 본 이상의 맹그로브를 식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간척지 내 독특한 경지정리지구 용수로가 기수역 지형을 형성해 맹그로브 식재 가능 지역임을 확인했다. 신안군 갯벌의 물리적 구조와 바닷물의 환경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맹그로브 적응 가능 조건으로는 ▲ 민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갯벌 ▲ 백중사리 때 최고 수위에서 갯벌 바다

까지의 깊이가 1.8m 이내인 곳 ▲ 겨울철(1월20일-2월10일) 바닷물 표층 수온이 10℃ 이상 유지되는 갯벌환경이 제시됐다.  
신안군 내 다수의 지역이 맹그로브 식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이 분석한 신안부근 갯벌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동근맹그로브 도입 후보지 4곳이 선정됐으며, 이 지역의 민물 유입 지역의 염분농도(1.03-1.30‰)와 바닷물 유입 지역의 염분농도(3.01-3.04‰) 모두 맹그로브 생육에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신안의 경지정리지구 용수로는 갯벌에 충분한 민물을 공급하며 자연하천의 기수역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맹그로브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용수로 시스템은 농업용수와 생태계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맹



신안군의 동근맹그로브 식재가능도입지후보지중 한 곳인 비금면 덕산리 농협 일대. (신안군 제공)

그로브 생육을 돕는 생태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맹그로브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블루카본으로서 맹그로브의 탄소배출권을 판매,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REDD+ 사업과 탄소중

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의 맹그로브 식재 프로젝트는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 영암 갈치낚시터 ‘인기몰이’...어민 소득 ↑

### 전년비 37% ↑ ...6억 이상

영암군이 개방해 전국 강태공들의 인기 속에 운영된 삼호 갈치낚시터가 6억원 이상의 어민소득을 벌어들였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21일-12월10일까지 어민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삼호읍 HD현대삼호 앞바다를 신상갈치낚시터로 개방했다. (사진)  
최근 목포해양경찰서가 영암군에 보낸 ‘2024년 함께 내 갈치낚시행사 안전관리 지원결과 통보’에 따르면, 이 곳 갈치낚시터에 관광객이 8천717명 다녀갔고, 어민은 6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관광객은 38%, 어민 소득

은 37% 상승한 수치다.  
특히, 갈치낚시터인 HD현대삼호 앞바다는 언론 보도와 강태공들의 입소문을 타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붐비는 낚시 명소가 이름이 높았다. 나아가 개방 기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해양경찰서의 안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낚시터로도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낚시터 개방이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준 어민과 관계 기관에 감사하며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사 기간 연장과 구역 확장을 논의하겠다”며 “무엇보다 내년에도 안전한 낚시터가 유지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며 개방·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 목포해수청, 진도 서망항 다기능어항 완공

### 어선 접안시설 확충·친수공간 조성 등 마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진도군에 위치한 국가어항 서망항 다기능어항 조성공사를 완공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1986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서망항이 2014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다기능어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어항기능 재배치를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관광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8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총사업비 약 333억원을 투입해 항내 정온확보를 위한 방파제 증고,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및 어업공간 확보를 위한 물양장 150m, 돌제 100m, 부잔교 2기 설치, 항내 준설을 실시해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어항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서망항 지역 축제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고, 북방파제 그림타일 포장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조동영 목포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장은 “서망항 다기능어항 조성공사 완공으로 수산업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수익 기반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망항어항 국가어항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 무안군,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 총력 대응

### 현장상황실 운영·유가족 맞춤형 지원책 강화

무안군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분향소 운영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현장상황실을 8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려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300명을 투입해 24시간 유가족 지원과 분향소 관리, 장례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희생자 11명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했으며, 하루 5천6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유가족과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승무원 피해자 6명에 대해서도 1대1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

을 강화하고 있다.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는 지난 1일 오후 2시 기준 8천164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무안군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모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문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통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일일 약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서

발차 등 식사 지원, 환경 정화, 물품 지원 등에 선포 나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개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해 현장 안내, 청소 등 다양한 역할로 힘을 보태고 있으며,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사고 수습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유가족분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 완도군, 청해삼·잡피 이식 수산자원 조성 ‘총력’

### 8개 해역에 88만미 방류

완도군은 “최근 약 2주간에 걸쳐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청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잡피 4만주를 이식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청해삼 종자는 신지 월부리를 비롯한 8개 해역(신지 월부, 약산 해동, 청산 상사·지리·읍리·당리, 생일 덕우도, 생일 용출)에 약 88만미가 방류됐다.  
방류한 청해삼 종자가 출하될 때까지 무단 조업을 금지하고자 방류 지역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추후 방류 효과 조사 등을 위해 해당 어촌계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협조받았다.  
청해삼 종자는 마리당 무게가 1.0g 이상이며 10개월이 지나면 출하 가능한 사이즈로 성장해 어촌계에서 단기간 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잡피 이식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

해본부(FIRA)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바다 정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안 가락리에서 채취한 잡피 4만주를 신지면 동고리에 약 1주일 동안 이식을 진행했다.  
잡피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으며 탄소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몇몇 해역의 선착장으로 많은 잡피가 떠내려와 어선 등에 걸리거나 미관상 좋지 않아

관리 측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매년 소안 가락리 마을을 포함해 보호종인 잡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파악, 새로운 장소로 잡피를 이식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여는 물론 잡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힘쓰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바탕으로 완도의 청정바다와 다양한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 완도 수산업의 발전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 해남 현산면 시등마을 일원 농촌공간정비...50억 투입

해남군은 2일 “현산면 시등마을에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이 지난달 19일 승인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에 필요한 위해시설 정비·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현산면 시등마을, 산이면 금호마을, 송지면 어란마을 순으로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현산면 시등마을 일원에는 2025년까지 50억원을 투입, 마을 내 위해시설인 폐도정 공장과 빈집 6개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월송 쉼터, 마을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마을 이미지를 개선, 귀농귀촌인 유입을 유도하는 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박필용기자